

# 아름다운 숲·청량한 응원... 무더위를 잊었다



“함께 달려요” 제74주년 광복절 기념 제5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가 11일 화순군 너릿재 일원에서 열렸다. 대회 참가자들이 화순 소아르 갤러리 인근 대회장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출발~” 구충곤 화순군수(왼쪽부터), 김여승 광주일보사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출발을 알리는 총성을 울리고 있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흥겨운 몸풀기 11일 화순 너릿재 일대에서 열린 '제5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개회식에서 돼지띠 모임 참가자들이 몸풀기 체조를 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 대한민국 대표 숲 선정 명품 옛길 상쾌한 질주 자원봉사자들 음식으로 격려...아리랑 공연 눈길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대회코스는 여러 모로 매력 있어요. 맑을 식혀줄 녹음과 그늘이 있고 반북해 달려도 지루하지 않은 정겨운 옛길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주일보사와 마라톤 세상이 11일 화순 너릿재 일원에서 개최한 '8·15광복절 기념 제5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에서 완주한 러너들은 한결 같이 대회 코스를 입에 올렸다. 또, 거친 숨 몰아쉬며 내달리는 험난한 코스지만 편백 등의 천연수종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 등의 청량한 기운이 더위를 가시게 할 만큼 상쾌하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한결같이 말했다.

너릿재 옛길은 산림청의 '아름다운 숲 10선'에 선정된 명품 레이스 코스다. 곳곳에 편백나무, 소나무 등 천연수종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내는 숲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옛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코스(옛 전남도청~화순군청)의 일부 구간을 복원한 코스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는 건각들이 땀과 열정을 쏟고 화합하는 한마당 잔치였다. 참가자들은 풀코스, 8.5km, 25km, 풀코스 릴레이 등 4개 부문에서 경주하면서도 서로 격

려하고 응원하는 스포츠 맨십을 내놔다. 코스를 왕복해 달리는 너릿재 마라톤의 주행 방식은 참가자들에게 소통의 길이 됐다.

오르 내리는 주자들이 교차하며 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자들은 떠나 없이 반대편에서 오는 주자들에게 응원과 격려로 기운을 북돋아줬다.

“여름 마라톤의 클래식”으로 통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화순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파견된 구급차가 코스별로 대기, 부상자 발생에 대비하는 등 대회 운영진의 세심한 배려도 명품 대회 위상에 걸맞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 참가자와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음식코너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더해졌다. 화순군인물 전국 마라톤대회 관계자들은 행사장에서 더위에 지친 마라토너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격려했다. 화순 여성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은 두부김치와 우뭇가사리 콩국 등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등 봉사활동을 했다.

자원봉사자로 대회에 참가한 김향순 전남도립극단단부수석은 행사장에서 아리랑을 개사한 메들리를 들려주는 즉석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릴레이 부문 우승 진주마라톤 클럽. 왼쪽부터 백중승·양중환·정순자·손용도·김진현 씨.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첫 릴레이 우승 주인공은 '진주 마라톤클럽'

제5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에 처음으로 도입된 릴레이(5인)종목에서 진주 마라톤클럽이 우승을 차지했다. 릴레이 대회는 마라톤 클럽간 화합을 위해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릴레이는 1팀당 5명의 선수가 풀코스를 5구간으로 나눠 뛴다.

마지막 주자는 반드시 여자선수로 해야 하며 마지막 구간에서는 앞서 뛴 남자선수(4명)도 모두 함께 뛰어야 한다. 결승선에는 반드시 팀의 모든 선수가 들어와야 한다.

이날 40명의 참가자들은 8개팀이 풀코스를 5구간으로 나눠 1명씩 8.5km 달렸다. 이날 대회에선 진주 마라톤클럽이 초대 우승을 차지했다.

진주마라톤 클럽 소속 백중승(55), 양중환(55), 김진현(55), 손용도(46), 정

순자(여·51)씨는 각각 풀코스와 하프코스에서 우승이 가능한 실력자였지만 릴레이에 전념했다. 이들은 환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정순자씨는 “릴레이 마라톤은 일반 마라톤과 차원이 다르다. 풀코스와는 달리 릴레이는 5명이 팀워크와 단합된 모습으로 동료와 함께하는 게임이다”며 “조직력도 필요하지만 완주했을 때 기쁨은 배가 된다”고 말했다.

김진현씨도 “3인 1조, 5인 1조로 모두 42.195km 뛰어야 하지만 너릿재는 8.5km 5구간으로 나눠 한명씩 뛴다”면서 “팀원들이 한번 일을 내보자는 생각으로 달렸다. 릴레이 경기는 전국에서도 너릿재가 유일할 것”이라며 업지를 치켜세웠다.

/김향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지난해 우승 공약 지켜져 기뻐”

### 男 풀코스 우승 마성민 씨

광주일보 마라톤 대회의 '우등생' 마성민(37·목포)씨가 '공약'을 지켰다.

마씨는 지난해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3·1 마라톤 대회와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대회 하프코스에서 연달아 우승을 이룬 '하프 코스의 강자'다.

마씨는 지난해 너릿재 대회에서 3전4기 끝에 우승을 이룬 뒤 “내년에는 풀코스 완주에 도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처럼 완주는 물론 정석근(47·서울)씨의 대회 5연패까지 저지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마씨는 “작년에 하프 뛰고난 뒤 풀코스를 목표로 열심히 연습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매일 10km씩 속도를 조절하면서 훈련을 해왔다”며 “우승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씨는 “자연 환경과 날씨 덕분에 더 기분 좋은 질주가 됐다. 마씨는 “선선한 바람도 많이 불어 달리기 좋았다”며 “아스팔트가 아닌 산길을 뛸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코스다. 무엇보다 흑서기에는 대회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좋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4전5기 끝에 이룬 우승 뿌듯”

### 女 풀코스 우승 황순옥 씨

“5번째 풀코스 도전 만에 이룬 뜻깊은 우승입니다.”

여자 풀코스 우승자 황순옥(45)씨에게는 긴 하루였다. 오전 3시 안산에서 출발해 광주로 온 그는 바로 42.195km를 완주했다. 그것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시상대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황씨는 “풀코스는 많이 뛰지 않았다. 이번이 5번째 완주인데 우승을 하게 돼 기쁘다”며 “너릿재 난코스를 이기고 좋은 기록으로 첫 우승을 이뤘다. 다른 흑서기 대회보다 코스가 좋았다. 그늘도 있고 즐겁게 달릴 수 있었다”고 환하게 웃었다.

황씨는 지난 2017년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하프코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흑서기 대회에서 우승의 꿈을 이뤘다.

비염 때문에 시작했던 마라톤은 건강과 성취의 기쁨을 주고 있다. 황씨는 “유산소 운동이 좋아서 마라톤을 시작했다. 다이아터에도 최고다”며 “우승의 기운을 이어 오는 9월 월원 마라톤 대회 풀코스에서도 좋은 성적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 자신감으로 베를린 대회 도전”

### 男 25km 우승 유세준 씨

“너릿재 마라톤대회 25km 우승을 발판삼아 다음달 열리는 제46회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 도전하겠습니다.”

남자 25km 종목에서 우승한 유세준(52)씨는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와 인연을 맺은 지 올해로 5회째다. 그는 “너릿재는 전체적으로 코스가 평탄하고 경지도 좋아 마라토너들이 뛰기 좋은 코스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마라톤을 시작한 유씨는 풀코스 완주, 3시간 이내 완주, 입상, 우승 등 계획대로 차근차근 목표를 달성했다. 유씨의 꿈은 세계 6대 마라톤대회(보스턴, 뉴욕, 시카고, 런던, 베를린, 도쿄)에서 완주하는 것이다.

그는 2015년 보스턴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완주했고, 다음 목표는 다음달 독일에서 열리는 베를린 마라톤대회다.

유씨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모인 동호인 23명과 베를린 마라톤에 출전할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몸관리를 해왔다”며 “83년 전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베를린에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향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첫 우승 너릿재 평생 못 잊을 것”

### 女 25km 우승 광도원 씨

“마라톤에 입문하고 처음으로 1등을 차지한 화순 너릿재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를 통해 마라톤에 입문한 광도원(44·대구)씨는 11일 열린 너릿재 옛길 마라톤 대회 여자 25km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광씨는 “대회 참가를 위해 난생 처음 광주와 화순을 방문했다”면서 “화순 너릿재의 시아나 자연관 등은 해외 여느 마라톤 대회 못지 않았다. 달릴수록 너릿재의 매력에 푹 빠져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8.5km의 반환점을 돌 때마다 응원해준 ‘74명 으르렁’ 동호회 친구들의 기를 받아 좋은 성적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광씨는 “학교 체육대회 때마다 계주선수로 뛰면서 잠시나마 육상선수를 꿈꾼 적도 있었다”면서 “부모님의 반대로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마음에는 욕심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광씨는 “지금 생각해도 땀 흘리며 달릴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며 “40대 여성도 손쉽게 마라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향영 기자 young@kwangju.co.kr